

“제랄드 젠타(GÉRALD GENTA)가 정의한 인제니어 디자인의 DNA”

저명한 워치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Gérald Genta)는 1970년대, IWC 샤프하우젠을 위해 인제니어 SL(Ingenieur SL)을 디자인했습니다. 스위스 럭셔리 워치메이커 IWC 샤프하우젠이 제랄드 젠타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아주 세밀한 디테일까지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인제니어 오토매틱 40(Ingenieur Automatic 40)은 기존 제품의 대담한 미적 감각과 차별화된 특징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나아가 인체 공학, 마감 및 기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IWC 샤프하우젠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 크리스찬 크누프(Christian Knoop)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몇 년에 걸친 개발 과정이 되짚어봅니다.

1955년, IWC 샤프하우젠이 인제니어를 처음 출시했습니다. 이 컬렉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제니어는 엄격한 기술과 디자인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IWC의 엔지니어링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컬렉션입니다. 이 제품은 엔지니어, 물리학자, 의사 등 업무에서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는 직업군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최초의 인제니어 모델인 Reference 666은 IWC의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이 제품에는 IWC 최초의 자체제작 오토매틱 무브먼트 8531 칼리버와 고효율의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연철 내부 케이스는 자기장으로부터 무브먼트를 효과적으로 보호했는데, 이 기술은 일찍이 1948년에 영국왕립공군을 위한 항해용 시계 파일럿 워치 마크 11(Pilot's Watch Mark 11)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인제니어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출시되었습니까?

1950년대의 사람들은 기술에 매료되었고 엔지니어링은 혁신, 진보, 번영의 수단이었습니다. 당대의 공학적 성과는 당시 여러 제품과 일상용품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 및 디자인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대한 낙관주의와 신뢰가 컬렉션의 이름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제니어는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모두 '엔지니어'를 의미합니다.

IWC는 1976년,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저명한 워치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가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디자인한 인제니어 모델인 '인제니어 SL'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업적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1950년대에 출시된 최초의 인제니어 모델은 다소 절제된 원형 케이스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랄드 젠타의 뛰어난 영감 덕분에 인제니어 제품도 완성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제니어 SL, Reference 1832 모델에서 그는 5개의 나사

홈이 있는 스크류-온 베젤, 체커보드 패턴 다이얼, 일체형 H-링크 브레이슬릿 등 과감한 미적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시계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차별화된 특징을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랄드 젠타는 오늘날 우리가 '제품 DNA의 전라적인 개발'이라고 일컫는 것을 달성한 것입니다. IWC는 모든 특징적인 요소를 유지하고 변주하면서 제랄드 젠타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인제니어 모델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랄드 젠타의 작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제랄드 젠타는 1970년대에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럭셔리 워치를 디자인했습니다. 방수 기능이 탑재되고 견고한 동시에 우아함을 자아내는 일체형 메탈 링크 브레이슬릿의 스틸 스포츠 시계가 클래식 골드 워치의 포지션을 대체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인제니어 SL에서 알 수 있듯이, 제랄드 젠타는 럭셔리 워치 분야의 명실상부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스틸 스포츠 시계는 당시의 시대 정신과도 부합했습니다. 일과 레저, 스포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이러한 변화가 시계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IWC가 오리지널 제품을 그대로 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오리지널 제품을 그대로 출시하는 방향도 논의했지만 이 방안은 빠르게 배제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디자인을 단순히 재출시하는 것은 인제니어 컬렉션을 향한 IWC의 열망과 포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WC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은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으면서 완벽을 추구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랄드 젠타의 배우자이자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제랄드 젠타 헤리티지 재단(Gérald Genta Heritage Association)의 설립자인 에블린 젠타(Evelyne Genta)는 제랄드 젠타 역시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기존의 디자인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회상합니다. 위와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할 첫 번째 인제니어 모델로 인제니어 SL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어떤 제품이 탄생했습니까?

인제니어 오토매틱 40입니다. 새로 출시된 오토매틱 모델은 1970년대의 상징적인 디자인이 보여주었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는 동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체 공학적 및 미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IWC는 수 년에 걸쳐 케이스 비율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사소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 이후로 제조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롭게 선보인 인제니어 모델은 가공 및 마감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디테일과 품질을 자랑하며, 폴리시 및 새틴 마감 처리된 표면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체 공학적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는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IWC의 목표는 손목이 가는 고객도 무리 없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균형 잡힌 40mm 케이스를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 년 동안 스틸 소재를 사용하고, 수많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착용감을 직접 확인하면서 케이스 비율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인제니어 SL은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브레이슬릿을 장착했고 코 모양의 홈을 사용하여 케이스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관상 유사해보이지만 인체 공학을 도입한 디자인의 새로운 미들 링크 연결 장치를 개발해 착용감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케이스 링을 미세하게 곡선으로 구현해 뛰어난 착용감을 보장합니다.

독특한 베젤은 제랄드 젠타의 디자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IWC는 이 디자인을 새로운 인제니어에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우리는 베젤의 비율과 마감을 수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고품질 다각형 스크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인제니어 SL의 베젤에 있던 다섯 개의 스크류는 단순히 케이스 링 위에 조립되어 위치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완벽주의자 성향인 저는 이 점이 늘 신경쓰였습니다. 새로운 인제니어 오토매틱 40에는 다섯 개의 스크류가 항상 정확하고 동일한 위치에 자리해 베젤을 케이스 링 위에 완벽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조각 같은 구조를 지닌 다이얼 또한 인제니어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Reference 1832와 유사하게, 인제니어 오토매틱 40은 '그리드' 구조의 다이얼을 특징으로 합니다. 가는 실선들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패턴은 아연 도금 직전 단계에 연철 위에 스탬핑됩니다. 이 구조는 다이얼 내부 전체에 적용되어 있으며, 다이얼 외부는 매끄러운 챗터 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IWC 로고의 크기와 위치를 다이얼 위에 매우 정교하게 조정해 0.001mm 단위까지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플리케에 발광 소재를 적용하여 야간에도 가독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외에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는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작은 사양들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슬릿 상단 부분에 외부로 돌출된 형태로 위치하던 핀을 제거한 클로즈 링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을 개선해줄 뿐 아니라 우수한 마감을 완성시켜 줍니다. 또한, 간결하면서도 단순한 형태의 버터플라이 폴딩 버클이 적용되어 브레이슬릿의 미학을 한껏 강조합니다. 미세하게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전면 글라스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시계의 전체 비율에 맞춰 더욱 섬세하게 조정되어 남다른 가치와 정교함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새 컬렉션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됩니까?

인제니어 오토매틱 40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블랙, 실버 도금 또는 아쿠아 다이얼로 출시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다이얼인 아쿠아 컬러는 그린과 블루가 혼합된 매력적인 색상입니다. IWC는 1980년대에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선구자였습니다. 가볍지만 내구성은 뛰어난 티타늄은 IWC의 엔지니어링과 소재 전문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므로, 인제니어 모델에 걸맞은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내부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컬렉션에 포함된 모든 모델은 오토매틱 풀 와인딩 시스템과 12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탑재한 IWC 자체제작 32111 칼리버로 구동됩니다. 인제니어 컬렉션의 헤리티지를 반영해, 모든 인제니어 모델에는 연철 내부 케이스가 장착되어 자기장의 영향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하고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또한 여타 현대 스포츠 워치와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10bar의 방수 기능을 보장합니다. 인제니어 오토매틱 40은 업무 및 레저 활동에 모두 적합한, 완벽한 타임피스입니다.

팀원들과 창작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디자이너들에게 인제니어 SL과 같은 상징적인 디자인을 재해석 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랄드 젠타의 업적은 최고 수준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기에 저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아주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와 제 팀원들은 모든 시각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반드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엄격히 자문했습니다. 마침내 에블린 젠타로부터 '제랄드 젠타도 분명 새로운 인제니어 오토매틱 40을 좋아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던 모든 열정과 노력이 마땅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IWC 샤프하우젠

IWC 샤프하우젠은 스위스 북동쪽에 위치한 샤프하우젠에 기반을 둔 스위스 럭셔리 위치의 선구자로, 포르투기저부터 파일럿 워치 컬렉션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의 컬렉션을 전개하며 엘레강스함은 물론 스포티함까지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1868년, 미국 출신의 엔지니어이자 워치메이커였던 플로렌타인 아리오스토 존스(Florentine Ariosto Jones)에 의해 설립된 IWC는 시계 제작 과정에 뛰어난 기술적 노하우, 훌륭한 장인 정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최첨단의 기술을 접목한 시계를 선보입니다.

150년이 넘는 역사에 걸쳐 IWC는 워치메이킹과 컴플리케이션의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했으며, 독창적인 크로노그래프와 캘린더로 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티타늄과 세라믹을 처음으로 사용하며 소재 개발을 선도하고 정밀한 기술과 특별한 소재의 시계 케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시계 브랜드의 대표주자인 IWC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투명성, 순환성, 책임의 철칙을 바탕으로 IWC는 세대에 걸쳐 전해질 수 있는 타임피스를 가장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해 제작 과정, 유통 과정, 애프터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혁신을 거듭합니다. 또한 IWC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이미지는 press.iwc.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 문의

IWC 샤프하우젠

Public Relations department

이메일 press-iwc@iwc.com

웹사이트 press.iwc.com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iwc.com

Facebook facebook.com/IWCWatches

YouTube youtube.com/iwcwatches

Twitter twitter.com/iwc

LinkedIn linkedin.com/company/iwc-schaffhausen

Instagram instagram.com/iwcwatches

Pinterest pinterest.com/iwcwatches